

## 한·일, 대화는 했지만... 수출규제 못 풀었다

문 대통령·아베 총리 정상회담

45분 간 진정성 있는 대화  
강제징용 문제로 합의 못해  
통상당국 대화 계속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상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간 무역갈등을 풀기 위해 한일 정상이 15개월 만에 한자리에 마주 앉아 화해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애초 목표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라는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다. <관련기사 3면>

그나마 양국 정상이 수출을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앞으로 통상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면서 화해 분위기는 이어갔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였다.

일본은 7월 4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그 사이 한일 양국은 각국의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서로를 제외하는 등 대응 조치를 주고받았다.

점점 깊어지던 양국 간 갈등의 골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 대화의 장을 열기로 일본과 합의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예정됐던 시간을 15분 넘긴 45분간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

히 회복돼야 한다"면서 아베 총리의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일본이 언제 수출규제를 풀지는 밝히지 않았다.

두 정상은 수출규제 해제 시점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눴지만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 내용은 향후 논의되고 협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끌어내지 못한 건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입장 차

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취한 근본적 원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인 만큼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의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데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와 수출규제·강제징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화의 장을 계속 열어놓은 만큼 해결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통상당국은 조만간 서울에서 8차 수출

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할 방침이다.

외교당국 역시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소를 위해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실무협의를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연합뉴스

알립니다

## 3·1절에는 3·1마라톤



제 5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풀코스·하프코스·13Km 코스  
2020년 3월1일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 13Km 코스 신설 ... 2020년 2월 11일까지 접수

최고의 전통, 최상의 코스, 최선의 진행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이 내년 3월 1일 개최됩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세계만방에 알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 마라톤은 2020년 제55회째를 맞이합니다. 이번 대회는 호남은 물론 전국 마라토너들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열리게 되며, 풀코스, 하프코스, 13Km 코스 세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마라톤 대회 코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에서 출발해 반환점인 영산강변의 승촌보를 돌아나와 상무시민공원에 끝나는,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애호하는 명품코스입니다. 새봄의 힘찬 기운이 약동하는 3월 1일 금남로에서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며 함께 달립니다.

광주일보사는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가족과 직장·동호인들 간의 우의를 다지고 시민들과 함께 3.1운동의 뜻을 기리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시 : 2020년 3월 1일(일) 08:30~
-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중광장 및 상무시민공원
-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 주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 종목 및 코스
  - 풀 코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승촌보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 하프 코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서창교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 13Km코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 경유 → 상무시민공원 끝
- 접수마감 : 2020년 2월 11일(화)
-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kjmedia.co.kr) (062)220-0541

光州日報社

## 광양제철소 폭발 화재 ... 작업자 등 5명 부상

24일 오후 1시 15분경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발전 설비 내부에서 2차레에 걸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작업자 1명이 골절상을 입는 등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관련기사 3·6면>

인근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는 안전문제로 일시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16대와 소방대원 48명을 투입해 화재발생 50여 분 후만에 진화했다.

이날 폭발 충격으로 이순신 대교가 흔들리고, 쇠조각 등 파편이 공장 주변 도로에 날아들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광양=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 내일 기공식

### 광산구 빛그린국가산단서

광주시는 26일 오전 11시 광산구 빛그린 국가산단에서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기공식은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광주시 공무원,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직원, 시공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국민의례, 이용섭 시

장 축사,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기념사, 기념촬영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자동차공장은 빛그린산단 1공구에 부지면적 60만4508㎡, 건축면적 8만6215㎡, 연면적 11만7335㎡ 규모로 건설된다. 생산동 3개, 공조실·경비실 등 부속동 13개를 짓는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21년 4월까지 공장 건설을 마치고 시험생산을 거쳐 같은해 하반기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 ONE-STOP 창업지원센터

친환경양식 기술이전교육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친환경 양식업체 모니터링 지원  
양식장 심화교육  
기술교류 워크숍

###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17~2019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53명(20%)이 양식장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흰다리새우	58	3	47	9	52	9	157	21
큰징거미새우	35	10	42	12	27	10	104	32

### 양식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드립니다!!

- 1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 및 내수면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2 배우는 비용이 적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 3 귀어·귀촌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어·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4 넷,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5 다섯,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